

설 명절 추모예배 순서

주후 2023. 1. 22(주일) 아침

사 회 담 당 자

목 도 _____ 고 _____ 를 추모하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앞에 묵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_____ 다 함 께

찬 송 _____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찬송가 559장) _____ 다 함 께

기 도 _____ 가 족 중

성 경 봉 독 _____ 시편 136:13 _____ 가 족 중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추모의 말씀 _____ 진정한 감사란? _____ 사 회 자

찬 송 _____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_____ 다 함 께

추 모 사 _____ 고인에 대한 덕담과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_____ 가 족 중

기 도 _____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_____ 다 함 께

추모의 말씀(Message)

- 진정한 감사란? -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36편에는 총 26회의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감사(Thank)'라는 단어는 '생각해 보다(Think)'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건강주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이 새로운 한해에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가족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 번 우리 인생에서 감사해야 할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시편 136:1)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그래서 때론 실패인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의 도상에서 때론 실패와 좌절을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2.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된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시편 136:2)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고,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우리 길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참된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해 우리 가족 모두 한 치의 실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시편 136:3)

모든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미 고인을 통해 이런 믿음의 길들을 보았습니다. 때론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 모두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명절에 다시 한 번 모여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구촌교회 제공